

북핵 문제·인사 논란... 문 대통령 지지율 70%선 아래로

<한국갤럽> 민주당 48%, 한국당 11%, 국민의당·바른정당 7%, 정의당 5%

한국갤럽이 9월 2주차(12~1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하면서 70%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9%가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 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3주 전인 8월 4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이 79%였으나 3주 연속 하락하면서 10%포인트가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 84%/10%, 30대 84%/10%, 40대 81%/13%, 50대 63%/30%, 60대

이상 41%/43%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6%, 인천/경기 72%/22%, 대전/세종/충청 68%/20%, 광주/전라 87%/9%, 대구/경북 62/31%, 부산/울산/경남 57%/27%였다.

부정 평가는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북핵/안보'(22%), 인사 문제(18%), 과도한 복지(9%),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과거사 들춤/보복정책(5%),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등을 지적했다. 이번 주 긍정률 하락·부정률 상승 폭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가장 크다.

긍정 평가는 이유는 큰 변화 없는 반면 부정 평가는 이유에서는 인사

지적이 많이 늘었다. 이를 보면 북한 핵문제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논란, 김이수 한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등 인사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1%, 국민의당 7%, 바른정당 7%, 정의당 5%, 없음/의견유보 22%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은 3%포인트 상승했으며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14일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8%다. 자체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당진시의회, 이동의정실 성공적 마무리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운)가 지난 6일 순성면을 시작해 15일 당진 2동을 끝으로 8일간 14개 읍·면·동의 2017년 이동의정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이동의정실은 많은 시민과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1일 2개 읍·면·동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 현안과제 및 견의사항 등 다양한 욕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격려되는 대화로 진행되었다.

어기구 의원, OECD 국내 사무소·노동계 등 포함돼야

다국적 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 위한 한국 NCP 기능 강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총남 당진)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OECD 국내 사무소(NCP) 운영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NGO 전문가들과 함께 2001년 설치 이후의 한국 NCP 운영에 따른 문제점 점검 및 효율적인 NCP 운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국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 환경문제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제정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나현필 사무국장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NCP에 참여하는 것은 NCP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방안"이라면서 "예산과 인력 충원 문제는 물론 법률을 통해 NCP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NCP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계 등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국 NCP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정착적 노력이 기울여졌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복기왕 시장,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강력추진 의지

2017 제4회 벤처기업인 이카데미



복기왕 아산시장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KTX 천안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지역 기업인들의 실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KTX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의 강력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지난 14일, 충남벤처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7 제4회 벤처기업인 이카데미에서 '지자체와 벤처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복기왕 시장은 "KTX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는 충남의 새로운 성장판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강연회에서 복기왕 시장은 "벤처기업인을 위한 지원

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개행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벤처기업인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종복 충남벤처협회장, 천안고용노동지청 양승철 지청장 등과 벤처기업인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충남벤처협회 이사회와 충남벤처협회와 천안고용노동지청의 업무협약식 그리고 성과경영연구소 정산진 대표의 강연 등도 진행됐다.

아산=리량주기자

중구의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하재봉)는 지난 1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정 예산액 대비 1.63%증가한 3,558억 3,491만원으로 이충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4,945만원이 늘어난 3,785억 778만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한 73억 2,712만원으로 확정하고,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반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이다. 김정환기자

원장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인생사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이다.

김정환기자

유성구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15일 제223회 임시회를 1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건의문 등 구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본환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 육성에 따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대동·금팅지구에 청소년 체험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금선 의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 실질적인 행정수도 돼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1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 이종열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윤형권 의원은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40여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이 이주해 왔지만 아직 다수의 행정기관과 국회 그리고 청와대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위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차 아직 이전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가가 모두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분권의 TF팀을 중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마련 및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자치·재정·복지·관광 등 각 분야별 추진 전략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종시도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무엇인지, 어떠

한 수준의 자치분권 도시를 원하는지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윤형권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불씨를 당기기 위해서는 첫째, 민·관·학 TF 팀을 구성하여, 시민·집행부와의 회의, 전문가 모두 상호 협력하여 대응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법개정안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다'를 포함시켜야 하며, 셋째,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밝혔다.

이종열 의원도 이날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농·축산업 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현재 농촌의 실정은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농업인구 감소, 쌀 소비 위축 기후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꾀하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서유럽의 '농촌 어메니티 운동'과 인근 충청남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 등의 선진 모범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세종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농·축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제안하여 눈길을 끌었다.

세종=이정복기자

●정정●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전 10시 대
전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
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18일 오전 10
시 본회의장
에서 열리는
제233회 임시
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효문화뿌리마을 현장실사



박용갑 중구청
장= 18일 오
후 4시 뿌리공
원에서 개최
되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
성사업' 현장실사 참석.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교육



장종태 서구청
장= 18일 오
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열
리는 '공동주
택 방범 및 소
방 교육'에 참석.

심폐소생술교육 확산 협약식



허태정 유성구
청장= 18일 오
후 3시 30분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심폐
소생술 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2018 사책구상보고회 주재



박수범 대덕구
청장= 18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
년 사책구상
보고회를 주재.

서구 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대전 서구 기성동(동장 박문규)은 14일 민·관합동 아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기성동 환경 지킴이 36명과 동 주민센터 전 직원이 10대 반을 편성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대형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또한, 기성동 환경 지킴이는 지난달 '내 동네는 내가 지킨다!'라는 마을 공동체 사명으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환경지킴이 최성립 통장협의회장은 "쓰레기 문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환경지킴이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대전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 41명 호주 취업 파견

취업역량강화·취업의 질 개선

대전시시장 권선택은 올해에
도 특성화고 학생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한 해외취업 확대를 위
해 해외취업 진출 대상학생 41명
을 선발하고, 18일부터 3개월간
호주에 파견한다.

시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이
번 글로벌현장학습은 특성화고
학생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해외
취업을 목표로 6개 분야로 실시
되며, 시비 2억 원, 시 교육청 3억
원, 국비 2억 원(교육부)을 들여

추진한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4월 유
성생명과학고에서 학생과 학부모
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0명이 신청해 지원평가
와 면접을 통해 최종 41명을 선발

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문기관에
서 어학·심화교육을 받았으며 12
월까지 호주 국립기술전문대학
(TAFE)에서 언어와 직무연수 등
을 거쳐 현지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도 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
습은 대전시와 자매도시인 호주
브리즈번뿐만 아니라, 호텔 등
서비스 쪽 사업이 발달된 도시인
골드코스트에서도 진행하며,
현장학습 완료 후 원활한 해외취
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은 호주의
요리, 자동차정비, 서비스 등의 부
족한 인력과 대전의 우수한 특성
화고 학생의 역량을 연계한 사업
으로 학생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
이 높아 계속 확대 추진 할 계획
이다"라며 "호주 현장학습을 통해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의 질 개선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박차

도시계획위원회서 용적률 300% 상향 정비계획 변경안 최종 승인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15일 대화동2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
경(안)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
원회(이하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돼 용적률 300% 장벽을 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
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해온 사업이 사업개
시 1년여 만에 초기의 결실을 맺
었다.

대화동2구역은 건설 경기 침체
와 수도권 대비 사업성 부족 등으
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곳이었으나, 지난해 8월 기업형
임대사업지를 유치하는 뉴스테이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 사업의 불
씨를 지폈다.

사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추
진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 300%
확보가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면서 이번 사업의 가장 큰 고비
를 넘어서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는 대

시내와 대덕구의 사업추진 의지
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
는 대전 최초의 뉴스테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한국경우AMC' 사이에서 사업
을 조율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생소한 사업개념 설명
과 용적률 상향의 당위성을 이해
시키기 위해 박수범 대덕구청
장이 직접 밭 벗고 나서 도시계획
위원 및 관계자들을 설득한 것으
로 알려졌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심의
의 통과로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나갔다고 할 수 있다"며 "남은
절차에도 박차를 기해 지역 주민
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
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동2구역 조합 관계
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낙후된 지역에 지역균형발전과
주거복지 실현하고자 한 위원
회의 결단력과 겸무로 시달리면
서도 이번 심의 통과를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해 온 관계 공무원의 노
력에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태선기자

대형 유통매장 과대포장 위반 행위 집중점검

유성구, 포장횟수·포장 공간비율 등 29일까지 실시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7일 초석 명절을 맞이하여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
터 9월 29일까지 과대포장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매년 명절마다 대
형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
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과
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함에 따
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양주,
민속주 등), 제과류, 화장품류, 잡

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
한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등을
집중지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주요 점검사항은, 공기질
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 포장
공간비율 조제(제과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위반(주류, 화장
품류), 부품과 부품사이에 고정재
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원
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

유·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건강
기능식품)하는 행위 등이며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
키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
는 주요 원인으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판매자는
물론 제조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양 1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종식)는 "우리 동 주민
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고 어
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
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위
기자정을 적극 봉급하여 도울 계
획이라고 말했다.

집수리 대상자인 박 모씨는 "무
릎관절과 간경화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낮은 주택을 수리할 엄두
조차 내지 못했는데, 깨끗한 집에
서 새 이불과 함께 초석 명절을 보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마워
했다.

가양 1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종식)는 "우리 동 주민
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고 어
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
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위
기자정을 적극 봉급하여 도울 계
획이라고 말했다.

집수리 대상자인 박 모씨는 "무
릎관절과 간경화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낮은 주택을 수리할 엄두
조차 내지 못했는데, 깨끗한 집에
서 새 이불과 함께 초석 명절을 보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고마워
했다.

박봉관 기자

추석 연휴 환경오염특별감시 추진

市, 공장밀집지역·취약 산업체 대상 중점감시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추석 연
휴를 전후해 산업체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벌
인다.

시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추석연휴 전후와 연휴기간 중
공장밀집지역과 취약 산업체 등에
대해 환경오염 예방 계도와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신고 상황을 비롯한 공장
주변 취약지역 순찰활동도 강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휴 전에는 6개
조 12명으로 특별 점
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
다.

한편,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전
화 128번으로 하면 된다.

이영호 기자

고 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
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증진되는
현실과 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
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센
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전지역 전반에 걸쳐 시
민의 인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
치는 자치법규 및 정책개정을 위
한 통로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실생
활에 적합한 인권보호 체계를 마
련해 적극적인 인권보호와 증진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는 조례
의 명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

째,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둘째,
인권보호 및 증진 프로그램 개발,
셋째,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대전지역의 인권현장을 발
굴해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인권
교재 및 교구 개발을 보급한다. 인
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네
트워크를 구축 및 민관 거버넌스
를 통해 대전지역 인권활동의 허
브역할을 하게 된다.

개소식 행사에서는 경과보고,
컷팅식, 기증식, 시민들과 함께 인
권침해의 빅을 깨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봉관기자

인권센터 개소식 25일 가져

대전시민 인권 보호·증진 확대 기대

대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대전시 인권센
터'(이하 '인권센터')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대전시민대학 식장
선홀에서 개소식을 연다.

인권센터센터장 김종남, 아래
인권센터는 대전 중구 종양로 대
전시민대학내에 사무실을 마련하
고 회의실과 사무실로 구성했으
며 회의실은 시민들의 인권관련

단체나 학습모임을 위해 자유롭
게 쓰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인권센터 개소를 위
해 지난해 12월 '대전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통과시키
고, 장소 선정 및 예산확보 등을
거쳐 지난달 운영을 시작했다. 인
권센터는 지난 7월 대전시 수탁
공모를 통해 대전YMCA가 위
탁운영하며 3명의 상근직원을 두

고 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지방
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증진되는
현실과 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
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권센
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전지역 전반에 걸쳐 시
민의 인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
치는 자치법규 및 정책개정을 위
한 통로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실생
활에 적합한 인권보호 체계를 마
련해 적극적인 인권보호와 증진
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는 조례
의 명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첫

청소년 어울림마당 와락(樂) 성료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지난
16일 대흥동 우리들공원에서 2017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와락(樂)을 개최했다.

'과거 또는 미래로의 시간여
행' 주제로 한 이번 어울림마
당은 11개의 체험부스 운영과 청
소년 동아리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그룹 사운드 Dawn
(던)이 준비한 주제의 노래
들로 시작하며 부모와 자녀 세대
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딱지왕 선발대회, 설탕을 이용
한 '슈가공예', 옛날노래 메들리
를 체험하는 '응답하라 1990' 등
의 체험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세
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딱지왕 선발대회, 설탕을 이용
한 '슈가공예', 옛날노래 메들리
를 체험하는 '응답하라 1990' 등
의 체험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세
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진행됐다.

2017 중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와락 5회차 '말싸미'는 올해로
571들을 맞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9월 30일 대체로 흥명프리존 앞
에서 개최된다.

김태선기자

서대전우체국, 추석명절 맞아 행복나눔 봉사활동

생필품 전달 훈훈한 정 나눠

서대전우체국(국장 한우향)은 지난
15일 추석명절

서산시 2017년 일자리 박람회 성황

430명 현장 면접 진행 32명 채용 · 250명 재 면접…맞춤형 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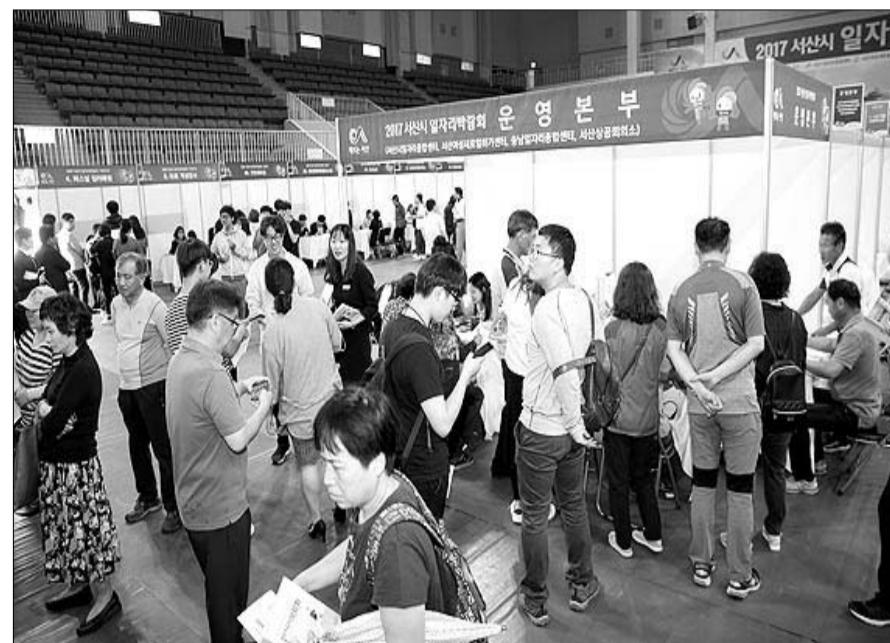
서산시가 14일 서산시민체육관에서 개최한 '2017년 서산시 일자리 박람회'가 1,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박람회에 시는 서산시일자리종합센터, 서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충남경제진흥원, 서산상공회의소가 함께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펼쳤다.

이날 시는 많은 청년층, 경력단절여,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구인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개하고 면접 희망자들을 사전에 접수 받아 맞춤형 매칭으로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 결과 박람회에 참여한 30개의 참여업체는 현장 면접을 진행해 430여명중 32명을 채용했고, 250여명은 재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20개 간접 참여업체에 지원한 70여명의 구

직자도 박람회 이후 개별 면접을 통해 채용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법률, 복지 상담 등 계

층별 상담 부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취업 취약계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페이크업 ▲타로 및 지문 작성검사 ▲퍼스널 커리어링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해 구직자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시는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찾아가는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발견하는 등 지역민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완섭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취업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기업과 구직자들의 큰 관심 속에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서산시는 기업과 구직자의 구인난과 구직난 해결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온양5동-능이네 오리세상 행복기움 협약 체결

아산시에 소재한 능이네 오리세상(대표 오동근)과 온양5동 행복기움 주민단(공동 단장 심홍섭, 강연식)은 지난 14일, 온양5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능이네 오리세상은 온양5동 행복기움 기금에 1년간 매월 5만원을 후원하게 된다. 협약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온양5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세대의 정기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오동근 대표는 "평소 지역내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방법을 몰라 머뭇거려 왔다"면서 "그 와중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구하고 있는 온양5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협약 체결로 온양5동 나눔 문화가 끊임없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단은 민간복지자원 발굴에 힘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책임 있는 음주문화 함께해요"

오비맥주,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오비맥주가 전국대리운전기사들과 함께 책임 있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다.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지난 15일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lobal Beer Responsible Day, 이하 GBRD)'을 맞아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와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글로벌 건전음주의 날(GBRD)'은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로, 오비맥주 글로벌 본사인 AB인베브가 바립직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2010년 지정한 날이다. AB인베브 전 임직원들이 우버 등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소비자와 주류 판매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음주 및 음주운전 예방 등 건전음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비맥주 김도훈 대표와 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오비맥주 '건전음주봉사단'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서울 삼성동 일대 주요 상권을 둘러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술 달리고 차 달리면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음주운전 경고 문구가 새겨진 대리운전 안내 홍보물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며 책임음주를 유도했다.

오비맥주는 서울 이외에도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2개 도시 주요 상권에서 전국 영업지점 직원들이 동참해 건전음주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송병배기자

충남농협, 금산군과 함께 '비단뫼' 농특산물 판촉전 개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등 풍성한 이벤트로 시민들에 즐거움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형)는 금산군(군수 박동철)과 함께 지난 15일 충남농협 직거래 금요장터(대전 대사동)에서 지역농산물을 팔아주는 '시군의 날' 행사를 갖고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판촉행사를 펼쳤다.

금산군의 대표브랜드 '비단뫼' 농산

물인 깻잎, 수삼, 새싹삼, 고추, 모둠쌈, 텁쌀 등 제철 농산물과 인삼가공식품(칡김, 절편, 사탕과) 약초(발효식품) 등 6 차산업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시식 및 농산물 무료나눔행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관 운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장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박동철 금산군수, 유찬형 농협 충남지역본부장, 금산관내 농협조합장 등이 함께 홍보·판촉행사를 찾아 인삼, 깻잎 등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과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22일~10월23일 / 32일간) 홍보대사로 장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충남농협은 올해부터 금요장터에서 매월 1회 시군별 농산물 성출하 시기에 맞춰 지자체장 및 출향인사 등과 함께 우수한 지역의 농산물을 알리는 '시군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송병배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면접관이 직접 찾아가는 면접 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17일부터 지원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역에서(여 합동검사 합격자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무면접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채용 면접은 지원자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방식이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면접관이 5개 지역으로 지원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의 경직

된 회사 내 면접 공간 및 암박면접을 벗어나, 지원자에게 이숙한 스티디 공간에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편안한 분위기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 지원자들의 면접복장도 자유복장으로 제한이 없다. 실무면접 합격자는 10월 초에 예정된 1박 2일 합숙면접에 참여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채용담당자는 "정장을 입고 회사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되다보니 지원자들이 긴장을

하고 싶을 수 있다. 이번 채용은 지원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원자 중심의 배려하는 채용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신입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과격적인 채용설명회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송병배기자

▲멧돼지 10만원 ▲고리나 3만원 ▲청설모 · 카치 · 비둘기 각 5000원을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상반기 군비 6000만원을 투입해 고리나를 비롯한 2153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그러나 최근 멧돼지 개체 수 증가로 고구마 등 농작물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금, 농작물 수확기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포획포상금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멧돼지 포획을 제작, 피해방지단 운영 등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 최대의 다문화축제

다문화화합한마당 Walk Together



대전 지역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시민 등이 어우러져 함께 걷고,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와 음식, 놀이를 즐기는 화합한마당이 9월 24일 열린다.

대전광역시와 월드후먼브리지는 24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 액스포시민광장과 한밭수목원 일원에서 '2017 다문화화합한마당 · Walk Together'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대전시와 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매년 진행해온 다문화 화합한마당과 NGO 월드후먼브리지가 주최해온 'Walk Together'를 작년부

이정복기자

세한대 디자인학과, 지역기업 연계해 취업중심 학과로 부각

'우수 디자인 프로젝트' 참여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디자인학과는 9월부터 12월까지 통합 멤버십 및 쿠폰 IT 브랜드인 '발트 루스트(Waldlust)'의 모바일 앱 플레이션 디자인 개발을 진행한다.

'발트 루스트'는 모바일 쿠폰 및 멘버십 분야에서 디지털 스텝 프로그램을 활용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결합한 독특한 서비스로 최근 업계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세한대 디자인학과는 산학협력으로 연구 2 과목에서 개발하는 발트 루스트의 모바일 앱 플레이션 디자인이 2018년 다양한 체널을 통해 서비스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당진=최근수기자

당진시 여성경제인연합회 협동조합과 산학연계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양 기관은 당진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 자체 개발한 2차 가공농산물 용기 라벨 디자인을 진행해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러한 전문적인 특성화 교육의 일환으로 세한대 디자인학과는 단체로 실무중심 교육과 산학연계 학습을 통해 학생 재능을 발굴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뿐만 아니라, 실기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도 우수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해 취업중심 학과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밭대학교 6.06대 1 · 대전대학교 6.41대 1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대전권 대학들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하락

대전지역 대학들이 15일 2018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대는 이날 2018학년도 수시모집 신입생 원서접수 최종마감 결과 1,022명 모집에 6,191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6.0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6.73대 1이었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전형)는 건축학과(5년제)으로 23.00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고, 이어 컴퓨터공학과(지역인재전형)가 16.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충남대는 9월 11일(월)~15일(금) 오후 6시까지 실시한 2018학년도 수시모집의 원서접수 결과 전체 2,484명 모집에 20,591명이 지원해 평균 8.29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시모집에서는 8.56대 1(2,483명 모집 / 21,260명 지원), 2016학년도에는 8.09대 1(2,506명 모집 / 20,286명 지원)을 기록하며 3년간 평균 경쟁률 8.31대 1을 기록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일반전형의 경우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가 25.33대 1(12명 모집 / 304명 지원)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의예과 25.24대 1(25명 모집 / 631명 지원), 지역환경토목학과 20.36대 1(11명 모집 / 244명 지원)을 기록했다.

PRISM인재전형의 경우 수의예과가 24.17대 1(6명 모집 / 145명 지원)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건축학과(5년제) 23.5대 1(4명 모집 / 94명 지원), 심리학과(4명 모집 / 80명 지원), 항공우주공학과가 20대 1(6명 모집 / 120명 지원)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대전대는 지난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 기준 진행된 2018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결과 정원내 1,781명 모집에 11,425명이 지원하여 평균 6.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3%(P) 하락한 것이다. 수시모집 상위 경쟁률은 간호학과 4286 대 1, 한의예과(자연) 26.75대 1, 응급구조학과(여자) 1900대 1, 물리치료학과 1700대 1, 경찰학과 15.40 대 1 순이다.

한남대는 1,825명(정원내) 모집에 9,646명이 지원해 5.29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4.84 대 1보다 상승한 것이다. 경쟁률 상위 학과는 한남인재전형의 간호학과 22.36대, 지역인재 전형의 행정·경찰학부 경찰학전공 18.8대 1을 기록했다.

목원대학교는 1,500명 모집에 7,714명이 지원해 5.14 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은 5.19대 1이었다. 학과별 경쟁률은 유아교육과 385대 1, 만화·애니메이션과 335대 1, 음악교육과 1279대 1 등이다.

건양대학교는 전체 모집정원 1,469명 중 9,944명이 지원해 6.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로 대전메디컬 캠퍼스의 경우 응급구조학과 15.83대 1, 안경광학과 12.17대 1, 작업치료학과 11.94대 1, 의학과 10.16대 1 등이다.

이정복기자

공주=정상범기자

옛 우물 전통 한옥양식으로 복원

공주시, 옥상반기 유구읍 등 4곳 정비완료



공주시(시장 오시혁)가 각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옛 우물을 지속적으로 복구해 전통 한옥양식으로 복원, 마을 주민들이 우물가에 도란도란 모여 옛 정취를 느끼며 이웃 간에 단절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에도 취수원이 마련지 않는 용천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마을 주민의 비상 식수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물을 복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옛

우물을 전통 한옥양식으로 복원, 마을 주민들이 우물가에 도란도란 모여 옛 정취를 느끼며 이웃 간에 단절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뭄 등에도 취수원이 마련지 않는 용천수가 많아 지속적으로 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마을 주민의 비상 식수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인 우물을 복원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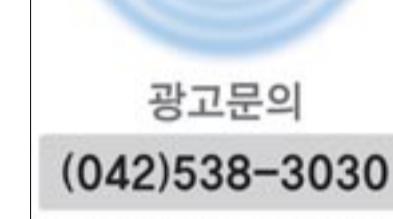
공주대, 2018학년도

수시 모집 경쟁률 8.98:1

공주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김희수)는 2018학년도 수시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2,157명 모집에 19,361 명이 지원해 8.98: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예술대학 민화애니메이션학부가 예체능우수자전형에서 42.33: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법대학 교육과학과 잠재력우수자전형 28.33:1,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학과 잠재력우수자전형 28.25:1,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과 지역인재전형 17:1, 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잠재력우수자전형 34.71:1, 공과대학(천안) 건축학전공 잠재력우수자전형 33.25:1, 산업과학대학 예산) 식품공학과 일반학생전형 28.64:1 등이 각 단과대학별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주=정상범기자



선문대 선학평화연구원 · 한국평화종교학회

'환경위기와 평화세계' 학술세미나

선문대 선학평화연구원과 한국평화종교학회는 지난 15일,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환경위기와 평화세계'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기조강연에서 이철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향후 50년 내에 5도 이상 상승하여 현재 평양의 날씨가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제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리랑주기자



농협충남지역본부 · 농업인생산기업

'판매활성화 상생 업무 협약' 체결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유찬룡)와 충남 관내 6차산업 인증 자마을기업 등 30여개 농업인생산기업이 주농협대전유동 회의실에서 농업인생산기업 상품 판매확대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전국 농협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농업인생산기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상품을 생산·공급하고

승병배기자



서천소방서장 추석연휴 대비 피난취약시설 현장지도 방문 서천소방서(서장이종하는)는 추석 연휴 화재예방대책 추진계획의 일환 중 하나로 피난취약시설 현장지도 방문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하 소방서장은 15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



공주경찰서, 제63회 백제문화제 종합치안대책 추진 공주경찰서(경찰서장 육종명)는 지난 15일 육종명 서장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8일 세계유산등재 2주년 기념 축하쇼를 시작으로 개최되는 '제63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교통 및 치안활동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대전보훈청, 청렴·친절 직원 포상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지난 13일 8월의 '청렴·친절 직원' 포상에서 민원인의 감사면지를 받는 등 '청렴·친절 미일리지' 실적점수를 높게 쌓은 유현주 주무관(원쪽)을 선정했다.



이산소방서, 직장교육훈련 실시 이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지난 15일, 이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 현장 활동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훈련을 실시했다.



고령체전우회 대전지부, 대전현충원서 '고령체 가족 건강걷기대회' 대한민국고령체전우회대전지부(지부장 이명종)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고령체 가족현충원길 걷기대회'를 실시했다.

청양군 화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무연고 공동묘지 벌초봉사 실시

청양군 화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선호)는 지난 15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무연고묘에 대한 벌초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작업은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연고가 없는 관내 3개소 공동묘지 내 잡목 및 넝쿨류 제거와 벌초를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고향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선호 회장은 "우리회원들이 땀과 노력으로 잡초가 무성한 공동묘지가 말끔해지는 걸 보니 참으로 보람을 느끼며 찾아오는 귀성객들도 편안하게 고향을 찾고 조상을 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해마다 ▲ 사랑의 집 고쳐주기 ▲ 어르신 생활 상 치료드리기 ▲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지역주민들에게 봉사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 단체이다.

청양=정상범기자

보조금은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 임자?

화물자동차 운행시간 부풀리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수천만원 편취 의혹

일부 운수업자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일이 발생해 선량한 대다수 운수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운수업자 A(청양읍 읍내리)씨는 지난 2009년 12월 경 아산시에 지입해 있는 덤프트럭을 구입했으며, 이 덤프트럭으로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제설작업 임대계약을 맺고, 6년간 운행하면서 제설작업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 1개월 평균 80시간, 적게는 10시간을 운행했다.

그러나 지금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2014년 1월 달의 경우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설작업을 위해 8시간 14분간 출동했음에도 2일부

이러한 사실은 정보공개로 입수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에 의해 밝혀졌다.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화물dump트럭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매년 겨울철 3개월간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서 제설작업 임대계약을 맺고, 6년간 운행하면서 제설작업 출동지시가 있을 경우 1개월 평균 80시간, 적게는 10시간을 운행했다.

그러나 지금내역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지난 2014년 1월 달의 경우 21일과 22일 이틀간 제설작업을 위해 8시간 14분간 출동했음에도 2일부

터 28일까지 유류 36만원을 주입했으며, 앞선 2013년 2월에는 6일부터 25일까지 출동기간이 11시간 40분에 지나지 않으나 유류는 607만원을 주유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유류경비가 발생했다.

정보공개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7천3백여만 원을 보조받았으며 이중 상당한 금액이 불법수급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일부 비양심적인 운송업자들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선량한 다수의 운수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한 유가보조금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

법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담당자는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가 너무 많다보니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꼼꼼히 확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해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유치원 신규교사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신규 임용된 공립유치원 교사 63명과 이들의 멘토교사 44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동안 충남학생인재수련원에서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멘토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1박2일로 진행된 이번 연수 역시 '프로젝트수업 이야기'와 '쌓기 놀이의 실제', 멘토와 함께하는 분임토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 등으로 배움 중심의 수업 나눔과 유치원교사로서의 역할 및 책무성을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정복기자

자동차보험 만족도, '보상처리' 높고... '가격·부가혜택'은 낮아

온라인 보험은 AXA다이렉트·The-K손해보험, 오프라인 보험은 삼성화재

daejeontoday.com

상품 다양성'(3.43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처리', '직원서비스', '서비스 호감도', '가격·부가혜택'에서는 The-K손해보험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보험상품 다양성' 만족도는 AXA다이렉트가, '정보제공' 만족도는 삼성화재 디아렉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채널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의 종합만족도가 3.67점으로 온라인(3.62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가격·부가혜택' 부문에서는 온라인 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온라인 보험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상처리'(3.86점), '정보제공'(3.66점), '직원서비스'(3.63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가격·부가혜택'(3.33점), '보험

'보상처리', '정보제공', '직원서

비스'에서는 삼성화재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서비스 호감도'는 KB손해보험, '가격·부가혜택'은 현대해상, '보험상품 다양성'은 동부화재와 삼성화재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소비자들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배터리 충전'(46.5%), '타이어 수리'(31.4%), '잠금해제'(9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각 사업자들이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해당 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공주사랑 운동 확산 위한 결의대회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 공산성 주차장까지 가두행진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회장 강병주)는 지난 15일 공주문화원 앞 음악공원에서 공주사랑 운동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공산성 주차장까지 가두행진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공주시의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시정에 기여하고자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공주사랑운동을 전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상점 및 사무실 입구 부착용 공주사랑운동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들의 이해심 고취 및 자긍심 고양의

계기가 됐다.

강병주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가 공주를 사랑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공주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사랑운동은 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이 앞장서서 공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정의 주요 목표인 공주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공주를 건설하는데 밀접이 되고자 하는 시민운동으로 이들 운동으로 지역 기구, 우리 지역 일하기, 자연봉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자원봉사 성지'서 자원봉사의 지속가능 미래 모색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맞춰 태안서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

'자원봉사 희망의 성지' 충남 태안에서 전국 자원봉사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원봉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5일 태안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연계 제10회 전국 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자원봉사 컨퍼런스는 자원봉사 혁신 과제 및 현안을 토론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시·도를 순회하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올해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맞춰 서해안의 기적을 이끌었던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도가 태안으로 유치했다.

기조강연은 한양대 유영만 교수

가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된다'를 주제로 진행,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인하정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자원봉사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라며 "자원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발적인 활동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답했다.

컨퍼런스 이틀째인 16일에는 ▲환경 ▲고령화 사회 극복 ▲여가문화 ▲생명증진 ▲마을공동체 강화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등 6개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한편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관련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에는 ▲전국 자원봉사자 희망 나눔 걷기 대회 ▲희망 사전 공모 및 전시회 ▲1365 캠페인 솔 풀레이스 ▲자원봉사 다큐영상 상영 등이 있다.

내포=김정한기자

인주청년회, 행복키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증



인주청년회(회장 김정운)에서는 지난 14일,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정광희)에 단독경보형감지기 80개를 기증했다.

김정운 청년회장은 "인주지역은 대체로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많은데 특히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운화재 발생 시 경보음이 발생해 골든타임 안내 대피를 도와주어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 맞먹는 효과가 있으며 배터리 연결 후 고정만 하면 되어 설치도 간편하다. 인주면 행복키움추진단에서는 마을의 복지이장과 함께 노후된 단독주택에 감지기를 직접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

한편, 인주청년회에서는 지난 1월에는 관내 27개 경로당에 생활필요품을 지원하였고, 5월 인주중학교에서 경로잔치를 열어 점심식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420여개를 제공하는 등 인주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소방서, 신임 의용소방대 임명

태안소방서(서장 구동철)는 지난 14일 신임 의용소방대원 1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장 수여는 새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에게 의용소방대의 역할, 관련법령, 현장활동 매뉴얼 및 현안사항 전달 등 정기 교육·훈련도 병행했다.

구동철 서장은 "새 소방기족이

된 신규대원의 임용을 축하하며, 지역 안전수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16개대 436명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관과 함께 신속한 소방활동 및 예방활동, 대민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동정

골프대회



한상기 태안군수
=18일 오후 6시
30분 현대솔라고
00에서 열리는 제
6회 태안군수기 골
프대회에 참석.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
=18일 오전 11시
정산면 송학리 동
화제 전수관 준공
식에 참석한 후, 오
후 2시 군청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양고추구
기자축제 결과보고회를 주재.

개발 협의회 주관



윤주역 청양교육
장=18일 오후 4시
청양교육지원청
장 학자료실에서
열리는 2018학년
도 초3 사회 지역
학교재 개발 협의회를 주관.



영인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아산시 영인면(면장 이정희)은 취약계
층을 위한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사
각지대 빌글을 통한 예방적 복지를 실현
하고자,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영인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빌
글 대상자 세대에 영인면장, 복지팀장,
사회복지담당자, 방문간호사가 월 5회
이상 방문해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파
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복
지서비스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정희 면장은 "내방 민원 행정처리
위주가 아닌 기관장의 찾아가는 방문복
지상담의 운영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
민들에게 먼저 디카가 선제적 복지서비스
를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적 복지를 실현
하는데 영인면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 기자

DT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기록으로 최대한 많이 재활용 드리며,
처련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전빌딩 7층
www.daejeontoday.com

태안군 서해안의 희망과 미래 밝혔다

우/리/동/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당진시·밭두렁 태우기 근절로 산불예방

당진시는 합덕읍 도곡리와 고대면 항곡리, 대호지면 적서리, 정미면 매봉리, 당진 2동 용연 3동 등 관내 5개 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의 불법 태우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의 협약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특징이다.

전국적으로 약 2만여 개 마을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당진에서는 마을 주변에 산림이 있는 252개 마을 중 무료 246개 마을이 이 사업에 참여해 97%의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당진에서는 올해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논과 밭두렁의 소각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주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행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등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대한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해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행적 소각행위를 막기 위한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는 서해를 되살린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놀라운 저력을
에 두한한 자부심을 느끼며 태안군
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전국 자원봉
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태안군
만리포 일원에서 펼쳐진 '희망 나
눔 한마당' 및 '유류피해 극복 10주
년 행사'가 새로운 희망을 밝히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07년 12월 만리포 일바
다에서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를 되새기고 태안군의 회복에 큰
도움을 준 123만 자원봉사자에 감

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과거의 모습을 되찾은
태안군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리
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
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이다.

행사 첫날 약 1500여 명의 참여
속에 펼쳐진 '희망 나눔 걷기대회'
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이
번 행사는 한상기 태안군수 및 안
회정 도지사의 환영사, 만리포를 방
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 개관식, 유류오염
방제 시연, 자원봉사자 희망성지 선
포식 등이 이어지며 분위기가 점점

에 달했다.

지난 2007년 사고 당시 방제작업
을 위해 태안을 찾기도 했던 문재
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위기
의 순간마다 응집력과 강인함을 보
여준 국민들이 태안의 바다를 살려
냈고, 태안의 바다는 이제 '생명의
바다'가 됐다"며, "후손들이 이 아
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누릴 수 있
도록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고,
모두의 힘으로 제 모습을 되찾은
태안 바다가 국민들에게는 쉼표가,
지역경제에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
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이어진 '희망의 성지 선포 환영
행사'에서는 각급 인사들의 인터뷰
영상과 희망 종이비행기 날리기, 하
얀 손수건 훌들기 등 다양한 퍼포
먼스로 자원봉사자 성지가 된 태안
군을 전국에 알렸으며,

희망콘서트에서는 바다, 씨엘씨,
이용복, 노사연 등 유명 가수들의
무대를 비롯,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소속 댄스동아리 '트루 폭스(TRUE
FOXES)' 팀이 태안을 대표하는 청
소년동아리로 콘서트에 참가해 초
가을 만리포를 찾은 자원봉사자 및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낭만과 즐거
움을 선사했다.

이밖에, 만리포에서는 작은 음악
회, 희망사진 공모전 및 거리 展, 해
안 영화관, 농·수·특산품 판매,
바다그림 그리기, 해산물 요리 만들
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3일간 이
어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태안군은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 각각의 노력 끝에 되
찾아낸 태안의 청정 해역을 앞으로
도 지켜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한상기 군수는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를 비롯, 지난 10년 간
태안군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국
민들과 자원봉사자 분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자원
봉사의 성지로 거듭난 태안군이 앞
으로 나아갈 희망찬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말
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청양군 지진대피훈련 실시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최근 국내외 잦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지진에 대한 대응역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14일~15일을 맞아 지난 14일 캠페인과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2시 군청 광장에서는 전 직원 및 군민이 참여하는 실제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했으며, 청양읍 일원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물을 배포하는 캠페인도 병행했다.

훈련은 지진 경보음이 울리면 실내에 있을 시 책상 밑이나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실외에 있을 시에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지진에 대한 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실제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동아리 활동으로 백세까지 꽂처럼 아름답게"

당진시 노인복지관, 동아리 정기공연 실시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
하)은 지난 14일 동아리 정기공연
"동백꽃"을 2층 대강당에서 실시
했다.

동아리 정기 공연은 노인복지관
회원들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
회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자발
적으로 조직 한 동아리 활동으로
공연을 통해 자긍심 증진과 제2의
노년의 삶을 꽂처럼 아름답게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 진행했
으며, 이번 동아리 정기공연은 3회
째로 금년도 마지막 정기공연이었
고,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나이

아가라 웨빙댄스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무지개 통기타 동아리, 한
울림 밴드 순서로 공연이 진행되었
다.

이병하 관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
이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
로그램 개발에 힘써 어르신들 계
세로운 역할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리로 활동 중인 나이아
라기 웨빙댄스 동아리, 무지개 통기
타 동아리, 하모니카 동아리, 한울
림 밴드는 지속적인 정기 연습을
통해 지역사회 유관 단체 및 복지
기관 등에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하
고 있다.

당진=최최근수 기자



청양군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4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성 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 수립 때부터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각종 군정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성 평등 요소를 고려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청양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송악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 열려

아산시 송악면(면장 이기석)은 오는 23일, 지역주민과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초청 내빈과 함께하는 '송악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 대축제'를 송남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한마음 대축제는 지난 2010년 9월 14일을 '송악면민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송악면민의 날' 추진 위원회(위원장 이덕희)의 주관 하에 격년제로 실시되는 송악면 화합 대축제이다.

올해로 8회째인 '면민의 날'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송악면 풍물체의 장구난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면민 입장, 면민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한 정겨움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석 송악면장은 "우리지역은 조상대로 송악면에 거주하는 주민과 전원생활을 꿈꾸며 도시에서 이주해온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으로서 이번 행사가 서로 돋고 배려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신창 면민의 날 행사 준비 박차

신창면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회장 오세홍)는 지난 14일, 신창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임원, 주민위원회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회 신창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 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오는 23일, 오목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신창면민 한마음 행사가 빈틈없는 사전준비를 위해 전년도 행사 대비 개선 사항과 화합행사 종목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토의를 실시했다.

오세홍 추진위원장은 "비쁜 일정에도 힘들게 참석한 추진위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는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식 면장은 "행사 진행 준비에 세심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신창면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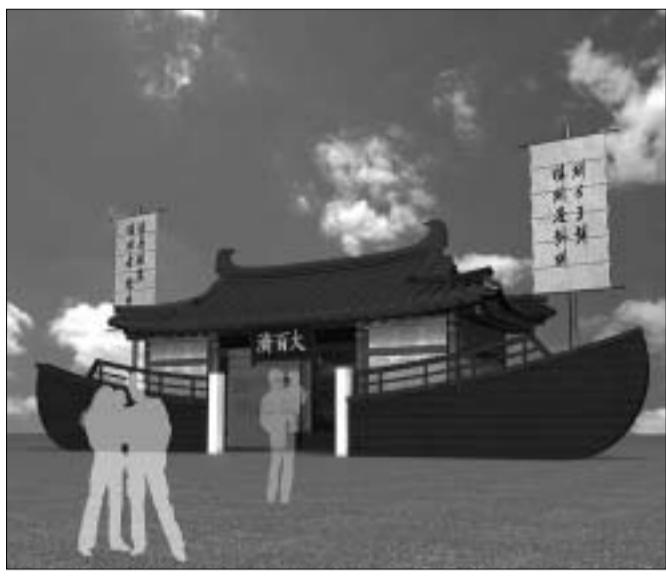
한편, 제7회 신창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 행사는 오는 23일, 오목초등학교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개최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천안시 '민원 24' 활성화 적극 홍보

불편함은 줄이기go · 편리함은 높이go · 홍타령 축제장에서 시민 홍보 나서



"백제역사 다양하게 만난다"

'백제테마로드전시관' 재미와 흥미 유발

제63회 백제문화제가 개최되는 부여가 천란한 사비 백제문화의 이색적인 전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다.

부여군은 오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 간 개최되는 제63회 백제문화제에서 주 행사장인 정림사지 주변 석탑로 일대에 '백제테마로드전시관'을 설치해 다양한 백제의 역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백제테마로드전시관은 석탑로 약 200여 미터 구간에 설치되며, 정림사지 돌담길을 중심으로 봉아시아의 중심인 한류 원조 백제의 역사를 짚어보는 '백제문화로'가 운영되며, 맞은 편 상가 앞 인도에는 사비 백제와 백제문화제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는 '백제술결로'가 설치된다.

정림사지 정문 앞에는 백제테마로드전시관의 주제관을 꾸린다. 부여 황포돛배 형태의 주제관으로 천란한 문화를 배에 싣고, 세계로 전파하는 한류 원조 백제를 표현한다. 주제관은 LED영상 및 백제 시대의 숨겨진 이야기, 왕의 일대기로 보는 백제의 한류문화, 백제문화제의 개요 및 역사 등의 내용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백제문화로'는 백제의 중흥을 이룬 성왕, 백제의 위기를 극복한 위덕왕, 의자왕의 진실 등의 이야기를 담은 배 형태의 전시대가 놓여지고 포토존으로 활용 가능한 용상이 배치된다.

'백제술결로'에는 대표적인 사비 백제의 유물 사전을 전시에 부착하여 전시하고, 누워야 보이는 이색 전시존을 구성한다. 이곳에서는 역대 백제문화제의 포스터를 감상할 수 있고, '사진으로 만나는 백제문화제의 역사', '틀린 그림 찾기' 등을 해볼 수 있다. '커플 의자 전시관'은 의자에 앉았을 때, 상대편에게 전시 판넬이 보이고, 백제에 연관된 인물을 전생으로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전시체험공간이 재미와 교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들의 동선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올 추석 선물 서천 특산품 최고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서천김, 한산소곡주, 모시떡 등 서천 특산품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천김은 충남 김 생산의 98%, 전국 김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며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에서 자라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인에게도 주목받고 있는 상품으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김은 연중 식탁에 오르는 음식으로 명절 뿐만 아니라 평상 시 선물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장용식탁용 조미김은 1만원 부터 마른김은 한 끗 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누구나 영양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스낵김 '마로침 43'도 인기리에 판매가 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중동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마로침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4번 구워 단백하다. 매운맛, 치즈맛, 아몬드맛, 코코넛맛 등 4가지 맛으로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으며 맛과 영양이 뛰어나 아이들 간식으로 제격이다. 한 봉에 3,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제례용으로 인기가 높은 한산소곡주는 1500년 전 백제 왕실에서 즐기던 술로, 과거 보려 가면 선비들이 한두 잔 마시다가 못 일어나 낭패를 봤다는 등 다양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100일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발효와 숙성을 거쳐 빛 어지기 때문에 맛이 부드럽고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로 특히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이나 명절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서천군에서 소곡주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51개소로 집집마다 제조비법에 따라 그 특징과 맛이 조금씩 다르며, 제품 용량도 700ml(1만2천~1만5천원), 1.5ℓ(2만원), 1.8ℓ(2만2천원~2만5천원) 등 다양하다.

한편, 추석명절을 앞두고 가장 많이 팔리는 특산품은 모시송편이다. 모시잎을 넣어 만든 모시송편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선물세트로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 1.2kg 기준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서천의 청정 자연에서 생산되는 멸치, 박대, 조기 등 의 수산물은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천안시는 365일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부민원포털 '민원 24'(www.minwon.go.kr)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민원24는 개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다.

사이트에는 5000여종의 민원 안내 자료와 3000여종의 신청 가능 민원이 등록돼 전입신고 등 30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고·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토지대장 등 58종은 전액 무료 발급이 가능해 시민들의 시민적·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편리함은 높여준다.

또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에

서는 건강·세금·과태료·예방접종증명·건강검진증·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1 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식품영업허가증·재교부 등

57종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최대 30% 정도까지 수수료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도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활용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한편, 천안시는 '홍타령 축제제 2017'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리플렛·안내문 등을 배부하는 등 365 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발급·신청·열람이 가능한 민원24에 대해 홍보했다.

앞으로는 시청 민원실 내에 민원24 전용 PC를 설치하고 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홍보동영상·상영·옥외 전광판·버스 정류장·단말기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민원24 이용이 활성화 될 경우 방문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안=구본성기자

2017 계룡군문화축제 계룡산 안보등반 신청자 모집

오는 25일까지 계룡군문화축제 홈페이지 통해 접수

(재)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이사장 최홍묵)은 국가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2017 계룡군문화축제' 기간 중 계룡산 안보등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단은 민간인 통제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계룡산 안보등반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계룡산 안보등반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계룡군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지

난 2년간 여러 상황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나, 신청을 원하는 관람객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최근 관련 기관과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

축제기간 중인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한시적으로

특별 개방되는 구간은 계룡대 활주로를 출발하여 암용추를 경유해서 헐기장까지 오르는 구간으로 올해 축제기간 중 한시적으로

개방되어 많은 등산 애호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계룡군문화축제 홈페이지(www.m-festival.org)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으며, 3일간 총 6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접수 방법은 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보등반 신청 코너에서 신청하면 개인 휴대폰 문자(SMS)로 참가자 확정 통보되고 참가자 확정 후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를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계룡산 안보체험은 축제장내 지정된 곳에서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4시간 정도 진행되며, 등반 후에는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국내외 군악대, 의장시범 공연, 병영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로 즐길 수 있다.

축제 관계자는 "제한된 구역을 3일간 개방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사랑 준수 등 참가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체험을 계기로 국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자연 사랑의 마음을 갖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산 안보등반 담당(042-840-2091 ~ 2)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 상담 '눈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어르신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 업무면 맞춤형복지팀은 찾아가는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지난 11일과 13일 계룡시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협동으로 유동2리와 도곡2리 경로당을 방문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 상담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께 '복지허브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우리 주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복지사

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주민들의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을 안내했다.

맞춤형복지팀은 앞으로 방문간호팀과 협동으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복지 욕구가 있음에도 면·동사무소에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엄사면 맞춤형복지팀'은 복지행정의 출발점인 면동을 복지 행정의 중심(허브)으로 만들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에 신설됐다.

신설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금 대상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인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선정 기준 대하여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73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효행수당' 신청하세요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전통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해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효행수당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학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2011년 제정됐다.

이에 서천군은 매년 설·추석 명절에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금 대상은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인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선정 기준 대하여 각 50만원의 효행수당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73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여군 어린이안전캠페인 실시

부여군은 지난 13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2017년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 개학기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민·관·경 협동으로 실시했다.

2017년 개학기 어린이 안전 캠페인은 부여군 초등학교에서 동부농협 사거리까지 부여군 부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군은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가 이뤄지도록 등굣길 교통안전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생활 속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및 태풍피해 기주로 발생하는 기울 철을 맞아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 홍보물 배부를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2017년 하반기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은 9월 한달 동안 교통안전 분야, 식품안전 분야, 유해환경 분야, 불법광고물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점검하게 된다.

(주)더맥키스컴퍼니, 논산강경젓갈축제 홍보지원 나서 '눈길'

논산강경젓갈축제 보조상표 전달식 · 소주병 보조라벨 홍보지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대전·세종·충청권 지역 향토기업인 (주)더맥키스컴퍼니와 2017 강경젓갈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지원에 나선다.

14일 더맥키스컴퍼니 김규식 부사장을 비롯한 남부지점 직원

들은 논산시를 방문, O2린 소주병 홍보라벨 전달식을 갖고 축제 홍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더맥키스컴퍼니는 '2017 강경젓갈축제' 홍보라벨이 부착된 O2린 소주25만병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시중에 유통·판매

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한다.

더맥키스컴퍼니는 (주)선양의 새로운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공익 캠페인 활동, 계족산 황토길 조성, 맥키스오페라 음악회 개최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표 향토기업이다.

황명선 시장은 "(주)더맥키스컴퍼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 강경젓갈축제 홍보 효과에 힘을 보태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넉넉한 텃밭과 가을낭만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7 우수축제인 강경젓갈축제는 오는 10

정

주간업무보고회의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18일 오전 8시 30분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4시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열리는 공주 대청소의 날 행사에 참석.

신규 임용후보자임용 전 교육 특강



김동일 보령시장 = 18일 오전 8시 30분 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보고, 오전 10시 30분 만세보령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열리는 2017 작물환경분야 종합평가회,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토정이지함상 심사위원회 참석, 오후 4시 웨스토파이에서 열리는 신규 임용후보자임용 전 교육 특강.

농협 신규조합원 교육



이완섭 서산시장= 18일 오전 11시 국민건 강보 협공단서 · 태안지사에서 일일명에 지사장으로 활동, 오후 2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리는 농협 신규조합원 교육에 참석.

공주시청에 '백제인'이 있다

종합민원실 직원, 백제복 입고 백제문화제 축제분위기 동참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다가오는 제63회 백제문화제의 분위기 확산 및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직원들이 백제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

백제복은 백제문화제 축제의상으로 전통 백제의상의 특징을 살려서 만든 옷으로, 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제63회 백제문화제의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 종료 시까지 착용하기로 했다.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백제복을 입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이자 2018 올해의 관광도시인 공주에



대한 홍보는 물론 백제문화제 분위기 확산과 이색적이고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실을 찾은 김 모씨는 "백제 옷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백제의 왕도였던 공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주진영 시민봉사과장은 "백제복을 입고 민원인을 맞이하다보니 더 친절해지고 더 예의를 갖추게 된다."며, "새로운 각오로 시민이 행복한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제21회 보령예술제 21일 개최

보령의 문화예술 축제 한마당인 '제21회 보령예술제'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보령문화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한국에 총 보령지회가 주최하고 보령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보령시가 후원하는 이번 '보령예술제'는 국악, 미술, 사진, 무용, 가요제, 연극 등 다양한 장르를 종합해 예술단체가 참가해 13개 분야, 16개 행사를 진행한다.

첫날인 21일에는 오후 6시부터 문화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보령시민을 위한 국악 공연 ▲오후 6시 30분부터 2전시실에서 제26회 한국미술보령지부 회원전 ▲오후 7시 20분 야외전 시장에서 제6회 풍경사진전 ▲오후 7시 30분 야외공연장에서 제21회 보령예술제 개막식 및 보령시민가요제가 열린다.

둘째날인 22일에는 오후 2시, 2전시실에서 제26회 한국사협 보령지부 회원전 ▲오후 6시 30분 대강당에서 전통춤 공연 4 바다 춤으로 물들다 ▲오후 7시 30분 특설무대에서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이 열린다.

23일에는 오전 9시, 야외무대와 소강당에서 제15회 청소년 미술실기대회를 비롯한 국악체험한마당, 민세보령백일장 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3시부터 문학관 로비에서 시와 석공예의 만남전 ▲오후 5시 30분부터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2회차), 오후 7시 30분부터 제13회 청소년 그림문화제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후 6시 대강당에서 '이장님댁 봉숙이' 연극 공연, 오후 7시부터 특설무대에서 생활문화동호회 페스티벌(3회차)이 열린다.

서산=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보령시,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

자원봉사자 · 시민 감사의 뜻 전달

보령시는 16일 오후 1시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재)서해안연합회,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주)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07.12) 10주년을 맞아 피해극복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 및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류피해 극복 홍보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남진, 강진, 장은숙 등 초청가수 공연이 열리며 축제의 장으로 승화됐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오전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원유 1만 900여 톤이 유출됐고, 보령 해상으로는 12월 14일부터 발생해 2008년 10월 10일 전문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자원봉사자 3만 4086명과 주민 10만 8621명, 공무원 5050명, 군인 등 1만 3438명 등 모두 16만 1195명이 투입, 10개월 여간 5438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수거했다.

특히, 보령의 9개 유·무인도 중 원산도, 외연도 등 13개 유인도와 22개 무인도 등 35개 도서의 오염이 심각해 양식·어선·맨손어업 소득 감소, 관광지 이미지 훼손 및 음식, 숙박업 등 매출 손해가 심각했었다.

김동일 시장은 "10년 전 유류사고로 보령과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가 기름 범벅이 됐었고, 기름띠는 조류를 타고 전남과 제주도 인근의 섬까지 퍼져나가는 등 국민들의 재산,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3만, 우리 지역에도 16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결국 '서해안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은 어떤 어려움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고, 앞으로 이러한 희망을 바탕으로 어민들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시9월 재산세 납부의 달

추석연휴기간 중 '희망세무사랑방' 운영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7만 4361건에 117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2회(7월, 9월)에 나눠 부과되며, 모든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재산세 납기 10월 29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 재산세 상당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희망세무사랑방을 운영한다.

이로써, 개천절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에도 재산세 상담과 편의한 ARS 1899-2777 납부방법 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 긴 연휴기간 중에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는 10월 10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로(www.gi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 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ARS 1899-2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 해미읍성 무궁화 코스모스 활짝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 관광객들 유혹

서산 해미읍성에 활짝 편 코스모스와 무궁화가 조화를 이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해미읍성 내 순리길을 따라 왼쪽에는 5,280m'의 면적에 무궁화 동산이, 오른쪽은 코스모스 꽃길이 600m' 규모로 조성돼 있다.

해미읍성을 방문한 시민들은 코스모스와 무궁화가 만들어낸 아름

다운 경치를 기억에 남기려 사진촬영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해미읍성의 무궁화 동산은

'제4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

에서 우수상(전국 2위)을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명소로 알려지고 있다.

해미읍성을 찾은 한 시민은 "지난 봄 방문 때는 유채꽃이 가득해 경치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 자리

에 무궁화와 코스모스가 만개해 읍성의 고풍스러운 모습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며 "내년 봄에도 해미읍성을 다시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식 서산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무궁화 꽃길을 추가 조성해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홍보하고, 가격표시제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김인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물이나 제수용품 등의 품목을 중점관리하겠다."며 "부정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 단속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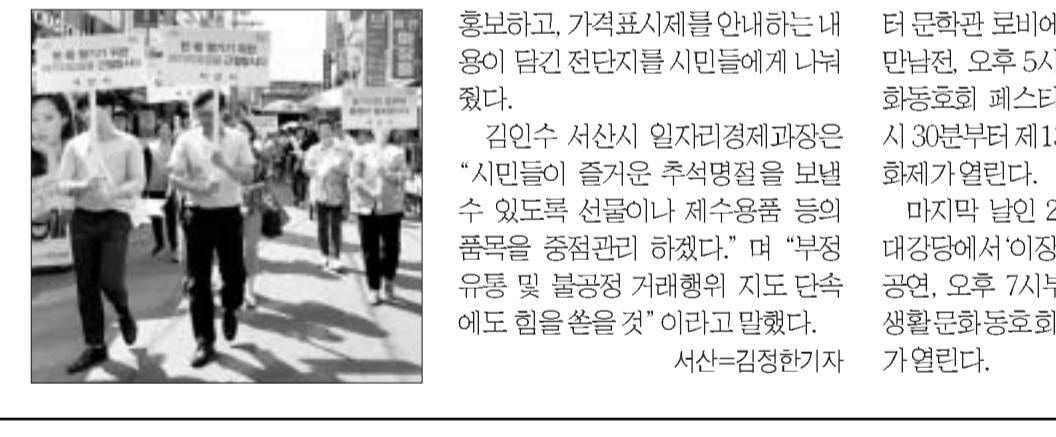
서산시, 현수막·어깨띠·피켓 등 이용 물가안정 동참홍보

서산시가 1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물가안정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를 비롯해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산시지회, 물가모

니터요원 등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동부시장과 터미널 등을 돌며 현수막·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해 물가안정에 동참할 것을



1. 현대식 전통 가옥

2. 단층집 가옥

3. 전통식 가옥

4. 현대식 전통 가옥

5. 현대식 전통 가옥

6. 현대식 전통 가옥

7. 현대식 전통 가옥

8. 현대식 전통 가옥

9. 현대식 전통 가옥

10. 현대식 전통 가옥

11. 현대식 전통 가옥

12. 현대식 전통 가옥

13. 현대식 전통 가옥

14. 현대식 전통 가옥

15. 현대식 전통 가옥

16. 현대식 전통 가옥

17. 현대식 전통 가옥

18. 현대식 전통 가옥

19. 현대식 전통 가옥

20. 현대식 전통 가옥

21. 현대식 전통 가옥

22. 현대식 전통 가옥

23. 현대식 전통 가옥

24. 현대식 전통 가옥

25. 현대식 전통 가옥

26. 현대식 전통 가옥

27. 현대식 전통 가옥

28. 현대식 전통 가옥

29. 현대식 전통 가옥

30. 현대식 전통 가옥

31. 현대식 전통 가옥

32. 현대식 전통 가옥

33. 현대식 전통 가옥

34. 현대식 전통 가옥

35. 현대식 전통 가옥

36. 현대식 전통 가옥

37. 현대식 전통 가옥

38. 현대식 전통 가옥

39. 현대식 전통 가옥

40. 현대식 전통 가옥

41. 현대식 전통 가옥

42. 현대식 전



오늘의 하이라이트

▲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 30분)



부담스러운 기색을 드러낸다. 희진(이지영)은 해찬(정윤석)이 과외를 빠진 걸 알고 화를 낸다. 한편, 대간고인(임범)과 성희는 보라(김보라)가 없어진 걸 알게 되는데...

▲ 왕은 사랑한다 (MBC 오후 10시 00분)



이란은 세나가 조작한 유전자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어 문주가 진짜 딸인 줄 알고 마음을 주고, 재우 또한 이란 옆에 문주가 있어 다행이라 여긴다. 세나는 선호가 결혼은 뒷전인 채 달님엄마를 찾는 데에만 열중해 화가 나고 선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라도 달님엄마를 꼭 찾겠다며 세나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한편 달님과 함께 도시락 데이트를 나온 재욱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는데...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KBS1 오후 8시 25분)

무궁화(임수향)는 냉랭해진 태진(도지한)의 태도에 속상해한다. 백호(김현근)는 성희(박해미)에게

케이블 영화

▲ 트랜스포머 (OCN 오후 5시 50분)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과 피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과 악을 대변하는 '디셉티콘' 군단으로 나뉘는 '트랜스포머'는 궁극의 에너지원인 '큐브'를 차지하기 위해 오랜 전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행성 폴리로 우주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큐브'. 그들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짓기 위해 '큐브'를 찾아 전 우주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딜레이터 군단의 깐직진 죽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의 무대로 지구를 택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구로 침입한다. 어떤 행성이든지 침입해 그 곳에 존재하는 기계로 변신,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트랜스포머는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인류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다.

그리고 그들은 큐브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닌 주인공 '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던 '샘'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낡은 자동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다.

▲ 미이라 (채널 CGV 오후 8시 50분)



영화 <미이라>는 디크 유니버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절대적 존재, 미이라 아마네트(소피아 부텔라)를 깨워 의문의 추락 사고를 찾아 전 우주를 떠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원인 '큐브'는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떨어지고 딜레이터 군단의 깐직진 죽적 끝에 '큐브'가 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들은 최후의 전쟁의 무대로 지구를 택하고, 아무도 모르게 지구로 침입한다. 어떤 행성이든지 침입해 그 곳에 존재하는 기계로 변신,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트랜스포머는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인류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미이라 무덤이 강력한 힘을 갑자기 잘못된 욕망으로 인해 산 채로 봉인 당해야 했던 아마네트 공주의 것이며, 자신이 부활하게 된 비밀이 이로부터 시작됨을 감지한다.

한편, 수천 년 만에 잠에서 깨어난 아마네트는 분노와 파괴의 강력한 힘으로 전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지킬 박사(리얼 크로우)는 낙에 의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케이블 & 위성 방송

▶ YTN 02398-8000 ▶ 스키리아이프 1588-3200

▶ 한국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스포츠 · 레저

뉴스 · 다큐

음악 · 애니

◆ OCN
3:30 킥 애스 2: 없는녀석들
5:30 인공자능 남자친구
7:00 그놈이다
9:00 CS 시즌 15
12:00 구해줘
13:20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15:50 트랜스포머
18:50 트랜스포머 2: 패지의 역습
22:00 트랜스포머 3

◆ 채널 CGV
2:10 리전
4:00 세이프
5:30 헬프
8:10 로봇, 소리
10:40 무뢰한
13:00 한나
15:10 프로메테우스
17:50 퍼시픽스과 괴물의 바다
20:00 미아라
22:30 더비자드

◆ Mnet
8:40 쇼미더머니 6 비하인드
top3 스페셜
10:00 아이돌학교 베스트 퍼포먼스
10:5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4
12:20 프로젝트 S: 악미의 재능
기부
13:4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40 쇼미더머니 6 비하인드
top3 스페셜
16:00 눈덩이 프로젝트
17:00 Daily Music Talk (SMS)
18:00 아이돌학교 베스트 퍼포먼스
18:50 M COUNTDOWN
20:30 Live on M (SMS)
21:30 아이돌학교

◆ MBC 스포츠플러스
8:30 이슈 & 피플
9:00 2017 메이저리그
14:00 2017 메이저리그
16:00 2017 NFL
17:00 2017 KBO리그 하이라이트
17:30 코리안 메이저리그 투데이
18:00 다시보는 2014 리틀야구 월드리그
20:00 불멸의 명승부
21:00 야구 중심

◆ SBS 스포츠
9:04 2017 U-18 아카데미 드컵 하이라이트
10:27 17-18 EPL 하이라이트
11:03 한국계 무파복서, 골로포인 스파셜
12:59 2017 U-18 아카데미 드컵
15:00 17-18 EPL 주간 핫매치
16:03 2017 LG U+ 배 3쿠션 마스터스
17:53 2017 U-18 아카데미 드컵 하이라이트
18:50 주간 야구

◆ 온스타일
6:35 갯잇뷰티 2017
7:45 섬총사
9:10 걸스 시즌 2
10:15 이담의 팩트폭격
10:40 비디 액츄얼리
11:35 걸스 시즌 2
12:40 이담의 팩트폭격
13:10 떠나보고서
14:15 비디 액츄얼리
15:10 원나잇 푸드트립: 먹방레이스
17:30 SNL 코리아 9
18:55 갯잇뷰티 2017
20:05 이담의 팩트폭격
21:20 비디 액츄얼리
22:10 끄거운 시이다

◆ YTN
8:00 이슈 오늘
9:00 2017 메이저리그
10:00 뉴스토리
12:00 뉴스 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 Q
18:00 뉴스 토큰
19:30 신율의 시사 텐
21:00 뉴스 만만
22:00 김선영의 뉴스 나이트
23:00 영업 중

◆ 한국경제TV
6:00 국무당국 투자의 아침
8:0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리안 10
12:00 쟈크 토어
13:00 증시 리안 13
15:3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 경제 이슈 N
17:00 성공 경제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경제주식 사구별구
20:30 대박천국

◆ 내셔널 오피그래프 체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 365
11:00 TV 농장
12:15 <노 맨 레프트 비하인드>
> 1부 - 리얼 블랙 호크 다운
13:15 <노 맨 레프트 비하인드>
> 2부 - 지역의 경험
14:15 <뉴질랜드의 위대한 자연>
> 놀고래의 수중 낙원
15:15 <뉴질랜드의 위대한 자연>
> 펭귄 가족의 성장기
16:15 <뉴질랜드의 위대한 자연>
> 비단사자와 여성
17:15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면세 만지지 못한 진열이 얼굴을 읽어내는 미미의 소리

◆ MBC 뮤직
7:50 Good Morning MBC MUSIC
9:10 나 혼자 산다
10:40 아이돌 TV
11:40 Show Champion
13:2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4:40 무한도전
16:20 아이돌 투어
17:10 나 혼자 산다
18:50 더남 꽃미남 분식집 우리는 영업 중

◆ 애니맥스
7:00 넥슨 나츠시즌 3
8:00 지오마이비스터 기다언
9:00 일어나우 루비
10:00 워킹볼 풍운이와 친구들
11:00 꼬마비스 타요 4
12: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13:00 안녕 자두야
14:00 헬로카탈 5
15:00 파파드
16:00 안녕! 고발개
17:00 터닝메이드 W 시즌 2
18:00 이울은 너무 이상해

◆ JTBC
6:00 재능방송
6:00 퍼피구조대
7:00 넥슨 나츠시즌 3
8:00 지오마이비스터 기다언
9:00 파워캐치 완다 Part 2
10:00 텔레몬스터
11:00 꼬마비스 타요 3
12:00 라비 시즌 2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 ARCA-V
15:00 애슬론 브로드
16:00 소피루비
17:00 안녕! 노보노보
18:00 터닝메이드 W 시즌 2
19:00 미미의 소리

TV 프로그램

*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9 6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충청남도 영성소식	6:10 EBS 특별기 통찰
7:50 인간극장	7:00 아침이 좋다	7:20 오늘 플러스	7	7:00 김경남 교수의 부모교육	7:20 경남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뜨처처	7:30 경남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뜨처처
8:25 아침마당	8: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7:50 정 오순남	8	8:30 달콤한 원수	7:30 은혜로운 말씀	7:45 뾰족한 통 뽀로로
9:30 행복한 지도	9:00 TV 소설 꽂파어라 달순아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	9:10 좋은 아침	7:30 열린마디어 시청자세상	8:00 딩동댕 우수원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40 여유만만	9:00 2017 메이저리그	10	10:10 SBS 뉴스	8:00 색션ニュース	8:30 늘어난 구조대, 뽀잉
11:00 명품 역사관 장영실	10:50 살림하는 남자들	10:50 왕은 사랑한다	11	10:25 SBS 생활경제	8:30 풀풀 풀리니	8:45 코코나 다리
11:50 김상훈 고맙습니다	11:50 한제리 소녀시대	11:00 꾸러기 팀구생 활	12	11:00 꾸러기 팀구생 활	9:00 원더볼즈	9:00 케나일
12:00 KBS 뉴스 12	12:20 문화사	11:30 요리조리 및 있는 수업	1	12:00 SBS 12 뉴스	9:30 원더볼즈	9:40 리아브 토크 부모
12:30 영광별법 산	12:30 영광별법 산	12:30 제 25회 임빙을 국의제	2	12:30 제 25회 임빙을 국의제	10:00 최고의 요리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00 네트워크 문화신문	2:00 영화가 좋다	1: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3	1: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11:00 세계테마기행	11:40 한국기행
1:50 시나트로크 황금연못	2:10 자동공부책 상위기 2	1:55 드림주니어 스페셜	4	1:55 드림주니어 스페셜	12:00 EBS 정오 뉴스	12:00 EBS 정오 뉴스
2:50 101세의 프로포즈	3:00 TV 유치원	2:25 텔레몬스터	5	2:00 뉴스브리핑	12:10 시청자뉴스	12:10 시청자뉴스
3:20 미래기획 2030-스마트 그리드, 골든타임을 잡아라	3:50 여유만만	3:35 미애카	6	3:00 생활의 달인	1:20 김경교 교수의 부모교육	12:20 시청자뉴스
4:00 4시 뉴스집 중	4:00 MBC 뉴스	4:0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7	4:00 생활의 달인	1:30 짐시 쉬어요, 스마트폰	12:30 시청자뉴스
5:00 KBS 뉴스 5 (수화방송)	5:00 VJ 특공대	5:40 왕은 사랑한다	8	4:00 생활의 달인	2:00 가고 보고 먹고	12:40 지식채널 e
5:30 동물의 세계	6:00 이롭없는 여자	6:10 생방송 오늘 저녁	9	4:00 생활의 달인	3:00 굿뉴스	13:40 출판수학 EBS MATH
6:00 6시 내고향	6:30 2TV 생생정보	7:15 돌아온 복단지	10	4:00 생활의 달인	4:00 잘먹 CO 잘살 CO	13:50 원더볼즈
6:55 시청자칼럼 우리 시는 세상	7:35 우리말 거루기	7:50 내 남자의 비밀	11	4:00 생활의 달인	4:30 건강 플러스	14:00 미술팀焓대
7:35 우리말 거루기	8:25 금로별 24	8:35 김경식의 영화 대영화	12	5:00 SBS 오뉴스	5:00 김경진의 집대성	14:30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9:40 KBS 뉴스 9	8:55 제보자들	8:55 별별머느리	13	6:00 인 블랙박스	6:25 사랑의 온도	15:00 방송 토론토 브로드밴드
9:40 가요무대	10:00 런제라 소녀시대	10:00 왕은 사랑한다	14	6:25 사랑의 온도	7:00 사랑의 온도	15:10 세계사 시간여행
10:40 KBS 뉴스라인	11:10 대국민 도쿄 쇼 안녕하세요	11:1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5	7		



대전대 학생상담센터, YWCA와 성폭력 및 기정폭력 피해 학생 회복 위한 MOU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윤경아 교수)는 지난 15일 대학 혜화문화관 학생상담센터에서 대전 YWCA성폭력·기정폭력 상담소(소장 정현주)와 성폭력 및 기정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룡산국립공원, 시민대학 제8기 수료식 가져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지난 14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시민대학 8기 수강 수료식을 진행했다.



채수정 인주면장, 찾아가는 복지상담에 앞장서 아산시 인주면(면장 채수정)은 지난 14일, 인주면 준사례관리사 및 담당직원과 함께 관내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서 고민을 듣고 희망을 전달하는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친구야 함께 가자”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5일 청양군 3개교 청소년들과 함께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생명지킴이 친구야 함께 가자’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서산소방서, 충남 소방동료 대회 금상·은상 수상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지난 14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9회 충남어린이 119 소방요령경연대회에 서산소방서 초등부대표로 출전한 서령초가 금상, 예천초가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온천2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주변환경개선 온천2동새마을협의회(회장 김재홍), 부녀회(회장 장순복)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은 지난 11일 온천2동의 공원 및 대로변에 수풀이 우거져 모기 등 해충 및 잡초를 제거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앞장섰다.

건양대 조성완 교수 ‘밸리데이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 공로상’ 수상



건양대학교(총장 정연주) 세약생명공학과 조성완(사진) 교수가 세계적인 권위의 인정사진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서 선정한 알버트 벨슨 마르퀴즈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마르퀴즈 후즈 후’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로 매년 세계 215개국을 대상으로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중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가 발간하는 21세기 2000명의 탁월한 지식인(2000 Outstanding

한 심사를 거쳐 등재하며 특히,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선정하여 매년 알버트 벨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알버트 벨슨 마르퀴즈는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의 설립자다.

조성완 교수는 현재 세계적으로 제약, 보건, 의료 분야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밸리데이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가 발간하는 21세기 2000명의 탁월한 지식인(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에 2016년 등재된 데 이어 올해는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수상을 통해 조성완 교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테이터베이스 MBO(Marquis Biographies Online)의 독점 액세스로 제공 받는 혜택을 얻게 됐다.

조 교수는 현재 한국밸리데이션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분야 국내 유일 온라인 강사 및 멘토로 활동 중이다. 또한 의약품 분야 최대 지식

이정복기자

대전시교육청, 친근한 접근 유도 위해 운영

청렴콘서트 “확 달라졌어요”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친근한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콘서트 형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청렴콘서트는 상황극·공연·영상 등을 융합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면서 동시에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렴콘서트 팀을 초빙했다.

특히, 신별주부전을 개시하여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렴판소리, 공직자의 허위 허식을 꼬집은 역할극, 예순의 늦은 나이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회제가 된 가수의 공연, 뇌물과 맞바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회재 사건을 돌아보는 등 알기 쉽게 공연과 즐기는 청렴교육으로 진행했다.

한편, 청렴행사로 한가위를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청렴 결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김정환기자

2017 당진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2013년 장기천 씨 이후 4년 만에 수상자 나와



사진 왼쪽부터 김금순·박광래·윤재구

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왔으며, 2011년에는 마을 소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한과를 생산하는 백석을미영농조합을 설립해

지역의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사회봉사부문 수상자 박광래(71세, 면천면) 씨는 지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소망의 집 노인 돌보기, 치매질환자 활동 치료,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밀반찬 제작 배달 등 3,247시간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특별공로부문 윤재구(84세, 송악읍) 씨는 개인 소유의 3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당진시에 기부해 기부금 전액을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깨끗한 정주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당진시민 대상은 오는 29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열리는 당진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민주평통, 한기형 회장 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 출범식

지난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가 아산시 근로자 복지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기형 신임회장을 비롯해, 김학민 충남지역회의 부의장, 복기왕 시장, 이심호 교육지원청장 등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79명의 18기 자문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6년동안 아산시협의회를 이끌어온 김세영 전임회장은 ‘경찰서, 교육청 등 기관들의 협조로 의미있는 협의회 활동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히는 이임사를 했으며, 한기형 신임회장은 통일운동의 질적 도약과 범국민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순천향대 부총장이자 아산시민인 김학민 충남부의장은 아산시의 선도적인 평화통일 사업수행을 요청했고, 대행기관장으로 참석한 복

기왕시장은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의 결연도시와 왕래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협의회 일원으로는 수석부회장에 이종명 자문위원, 부회장에 김영애, 이기애, 최재영 자문위원, 김환일, 최선희, 김호, 강선미 자문위원이 분과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진행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하반기 사업에 대한 논의와 충남·전국 자문회의 출범식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아산=리량주기자



Total Interior Design

엔.에프

Mobile 010-8422-6946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113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113

전화: 042-8422-6946

Fax: 042-8422-6946

E-mail: enf@naver.com

홈페이지: www.enf.co.kr

문의: 010-8422-6946

문의: 010-8422-69

대투 논단

김현태
논설고문

저출산·고령사회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로 유소년 인구 677만 명을 추월해 전국적인 고령사회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전남 고흥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38.1%로 전국 최고 16개 읍면 가운 데 두원면은 51%로 주민 둘 중 한 명은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속도로 초고령 사회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대로라면 고흥은 30년 내에 소멸되는 도시로 대두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하나들이 아닌 삼각 수준이다.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졸업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의 장기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아도 뚜렷이 알 수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2,000 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번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 1,000 명을 기록한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취업자 수는 올해 2월 37만 1,000 명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30만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달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신규 취업자 수는 3월 46만 6,000만 명, 4월 42만 4,000 명, 5월 37만 5,000명, 6월 30만 1,000명, 7월 31만 3,000명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청

년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졸업이 취업 인 국가가 아니라 졸업이 곧 실업인 나라가 되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도 체감실업률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백범기념관에 전국의 보건의료 종사자를 불러 모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동선언까지 하였다. 대통령에게 올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신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야무진 계획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10만개에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우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의지가 여타 부처와 기관단체에도 확산되고 기업체들도 적극 나서 준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물론 정부도 솔선하여 이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 복지국기를 향하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추동력을 살리는 길이다.

가는 또 다른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백세건강을 유지하며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하는 당연한 권리다. 이를 실현하기 갖추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는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전 근대적인 정부의 비행거리는 3700km에 이른다. 17일 만에 사거리 1000km나 늘렸다. 정상 각도로 쏟은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거리인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미군 전략거점인 괌에 도달하고도 남을 거리다. 평양에서 괌까지는 3400km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보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한 핵탄두 모의 폭발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기나 방법 모두 무모하기 짝이 없는 도발이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오히려 핵탄두 탑재 미사일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를 버젓이 드러낸 셈이다. 대북 원유 공급의 30%와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섬유 및 노동력 수출 등 외화벌이 수단의 차단 정도는 이랑 못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핵무장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자 하는 외줄타기 전술 그 자체다. '괌 포위사격'이 엄포가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설

제재 비웃듯 또 도발... 대북 실효조치 있길

'전술핵 재濒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CNN 인터뷰와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검토'라는 정부 발표를 앞서 들은 우리 국민의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겁다. 전술핵 문제는 똑 부러지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남겨뒀어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고, 대북 지원은 아무리 인도적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기가 공교롭기 때문이다. 이번 미사일 도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 번째다. 북한은 새 정부의 대화 제의는 거들며 보지도 않았다. 오죽했으면 "안보 무능도 시치스럽다. 안보 포기"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올까 싶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단호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기대한다. 앞으로 유엔 종회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외교 일정이 이어진다. 미국 등 우방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한다.

박성진 결국 사퇴, 인사시스템이 대론 안 된다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빚었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22일 만이고,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나흘 만에 물러난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으나 자진 사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청문회 전부터 종교관과 역사관 편향, 이념 문제 등에 훨씬이고 종기부 업무와 관련해서도 능력 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진 점을 감안하면 애초 잘못된 인선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의 사퇴로 신설 중기부는 부처 표류가 더 길어질 위기에 놓였다. 53번째 장관이 공식이고 다음 후보자가 언제 결정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하는 수장이 없는 건 비정상적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외경에서 부처로 승격시켰는데, 정작 본격 가동은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장관은 장기간 공백 사태를 맞고 있으니 담당한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인사

난맥상이다. 장관급 이상 공직자 후보가 낙마한 게 벌써 다섯 번째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부 시절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새 정부의 '인사 참사'라는 쓰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후보 지명 전에 어떻게 검증했길래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인사들을 내세웠다가 줄줄이 탈이 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검증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이런 인사 참사가 생길 수 없지 않는가.

이번 사태는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안 된다. 중기부의

업무 치질뿐 아니라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국정 추진동력 등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70% 아래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부정 평가의

이유 중 인사 문제가 '북핵·안보 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대

통령과 청와대는 인사의 잣대가 국민 눈높이

대신 자기 진영이나 '내 편'에 편중된 건 아

지 곱씹어 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인

사에서도 소모적인 논란과 잡음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소사

기고

권경자
아산시립도서관장

청렴한 세상 함께 만들기

거다. 물론 나도 직장 상사나 동료, 후배한테 실수를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을 벌미로 내게 불미스럽거나 깜끄러운 관계 또는 후한이 두려워 전전긍긍한 경험도 했었다. 그러면서 이것에 본인 스스로 느끼는 패첨죄로구나, 상대방이 무어라 하기도 전에 지레 짐작으로 혼자 끙끙 거린 가슴앓이의 기억이다. 그런데 요즈음 내가 생각하는 종교, 아니 사람들이 가장 모질게 다뤄야 할 죄가 하나 생긴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이를 하여 물염죄다. 사회의 지도자, 국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이를 만불로 전 국민이 알아 볼 만한 사람들의 치부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리고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삭여야 한다. 끊어오르는 분을

침아내려면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화풀이와 넋두리를 해보며 세상을 원망해 보기도 한다. 웨나하면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도 멀리 있는 사람 이어서 직접적인 짐작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세상에 그런 놈들이 있나봐'며 또 '우린 이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한탄 아닌 한탄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이 저지를 잘못 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참으로 염치없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다. 특히 요즈음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청렴, 누구나 지켜야 할 책무이다. 지나야 할 덕목으로 자리 잡은 청렴과 관련된 비리를 살펴보면 국민에 대한 염치없는 행동들이 대부분이라서 저지를 죄에 상응하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m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일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 선서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